

보도시점 2026.6.29.(월) 16:00 배포 2026.6.29.(월) 15:00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 중동 정세 불안 등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수주기업 국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하 지원단)은 6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리스크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수출 플러스 지원단 유법민 부단장을 비롯해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장승화 의장 등 주요인사와 해외 수주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중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부터 계약 단계별 실무 전략, 실제 분쟁 해결 사례까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장승화 의장이 '기업의 전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국제중재'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백윤재 변호사가 '실제 기업분쟁과 실무적 해결방안: 국제

중재의 활용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대한
 상사중재원 엄영신 변호사는 ‘효율적인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단계의
 실무 전략’을 발표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협회 정지훈 연구위원이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향후 유망 분야 전망’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향후 진출 전략
 수립을 도왔다.

유법민 수출 플러스 지원단 부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수주 환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민·관이 원팀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라며, “지원단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해외 수주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 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재정재정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진출팀	책임자	팀 장 공경화 (02-6000-5784)
		담당자	사무관 김호열 (02-6000-5774) (devils77@korea.kr)

